

CEO는 변화를 꾀한다(4)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시민단체 인사들 상당수가 정부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아이덴티티(identity)에 대해 논란이 많다. 여하간 시민단체는 정치를 비롯하여 기업과 각 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 역시 서울대 명예교수 학현(學峴)변형운 선생님을 모시고 십여년간 경실련 초대기업평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존경받는 기업’을 격려해왔다. 시장(市場)전문가인 동시에 시민단체 벌론티어(Volunteer)로서 시민참여 정치에 대해 남 못지 않게 주의할 점을 알면서도 여러모로 깊이 이해한다. 선진국 기업도 오래 전부터 시민 운동가들과 함께 해 왔다. 함께 해왔다는 것은 기업이 시민운동가들의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의 사랑과 신뢰를 얻는 계기로 만들어 성장발전해 왔다는 뜻이다.

시민운동과 함께 해야

미국경제가 세계2차대전 이후 최고 호황기를 구가하던 1965년. 미국 자동차업계는 뜻밖의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하버드대를 갓 졸업한 30대 변호사인 랄프 네이더가 펴낸 ‘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Unsafe at Any Speed)’라는 책 때문이었다. 미국승용차들의 성능과 구조적 결함을 지적한 책이었다. GM은 그를 매장기 위해 사설탐정을 동원해 뒷조사를 감행했다. 온갖 회유와 협박도 모자라 미인계까지 동원하는 치졸한 수법까지 썼다. 그것이 알려지면서 네이더는 더욱 스타가 되었다.

‘다윗’ 네이더는 ‘골리앗’ GM과 2년간 법정투쟁을 했다. 다윗은 결국 미국의회가 1966년 자동차 리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도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네이더는 GM사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다. GM을 비롯하여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그 후 더욱 소비자들 입장을 고려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 네이더는 ‘성인 네이더’라고 불릴만큼 청렴결

백한 금욕주의자였다. 또 그는 시민운동을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이용치 않는다. 물론 그는 지난 92년(무소속 후보)과 96년(녹색당 후보)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뜻은 다른데 있었다. 선거라는 정치마당을 통해 시민운동의 선전장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 낙선 되기 위해 공직에 출마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경영을 피해야

카드 한 장이 신용카드 기능도 하고 버스나 지하철 카드 노릇도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것을 하이브리드(Hybrid)라고 한다. 하이브리드는 혼용, 잡종 등으로 번역된다. 잡종시켜 생육시킨 생물은 생산성이 좋거나 내병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 대학 출신보다도 타대학 출신 총장을 선임하여 대학 발전을 꾀한다. 기업도 자기들만의 순혈주의를 버려야 강해진다. H그룹출신 경영자가 S그룹의 CEO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의 조화를 꾀하는 것도 대세다.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해 기업과 학교가 협력하는 산학 협동은 다반사다. 또 관료가 경영자로 영입되고 경영자가 장관이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인사들이 정부에 진출하는 것처럼 이제 기업도 시민사회 인사들과 교류를 해야 한다.

서로 이해를 증진시켜 오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일테면 사외이사로 시민단체인사들을 영입하여 투명경영을 가속화하면서 신뢰를 획득하는 게 좋다. 바로 하이브리드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세상은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인 즉 정부기구 GO(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인 시민단체 그리고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